

agenda

January, 2019 | 김수진 기자



이명호, 'Nothing But #3'

사진 미학

<Nothing, But> 서정적이면서 철학적인 사진 작업을 펼쳐온 사진작가 이명호의 개인전. 'Tree', 'Mirage' 등 대표 연작과 함께 신작 'Nothing, But' 시리즈를 선보인다. 풍경 속에 캔버스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사진 속에 소박하게 '개입'해 현실과 비현실, 재연과 재현의 경계를 넘나들어온 작가는 이번 공개한 신작에서 하얀 캔버스를 전면에 내세워 좀 더 집중적으로 작업의 본질을 탐구한다. 작가는 "캔버스 전면에 드러난 이미지가 아니라 빈 캔버스로 바위나 나무를 가려 뒤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1월 13일까지, 갤러리 현대.

<Koo Bohnchang> 백자의 미학을 사진에 담은 구분창 작가의 개인전도 한창이다. 2011년 국제갤러리 전시 이후 7년 만의 개인전으로, 2014년 작업한 후 처음 공개하는 '청화백자' 연작 1점을 비롯해 대표작인 '백자' 연작 11점, 쉽게 접하기 어려웠던 대형 작품 '제기'와 '연적', 하나의 오브제처럼 좌대 위에 설치한 '청화병풍' 등 총 3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한다. 지난 30여 년 동안 오브제를 바라보는 특유의 통찰력과 감성, 남다른 표현 감각으로 쌓아온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가 유려하게 펼쳐진다. 2월 17일까지, 국제갤러리 부산점.



구분창, 'OM 17'

<무한주Endless Column>

권오상, 김인배, 이동욱 3인의 그룹전. 정통 조각의 노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펼쳐온 세 작가의 작품이 하나의 공간을 채운다. 현대 조각의 창시자 브람쿠시의 대표작 '무한주'를 전시명으로 내건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는 동시대 조각가들의 '로망'과 '집념'이 만들어내는 역설과 가능성에 대해 고찰한다. 3월 30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라이프호텔.



권오상, '붉은 서초와 흰술, 칼더의 서커스'

<이스트빌리지 뉴욕: 취약하고 극단적인>

1980년대 뉴욕 이스트빌리지를 조명하는 기획전. 데이비드 워나로비치, 장 미셸 바스키아, 키스 해링 등 당대를 대변하는 작가 26인의 회화, 조각, 영상 작품 75점을 한데 모았다. 일상에서 얻은 영감으로 다양한 실험을 펼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작품에 표출한 이스트빌리지 작가들의 치열하고 생생한 예술 세계를 만날 수 있다. 2월 2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청정차, 뉴욕, 뉴욕

<섬세함에 열정을 담다>

프랑스 일러스트레이터 티보 에렘Thibaud Hérem은 건축물과 식물, 각종 오브제를 면밀히 관찰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손과 펜으로 섬세하게 그려낸다. 0.1mm 선을 통해 고도의 집중력으로 구현한 드로잉이 감탄을 자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럽 곳곳의 건물 파사드를 그린 대표작부터 대형 나무, 운보선 고택 등 한국에서 작업한 드로잉을 두루 선보인다. 2월 14일까지, 알부스 갤러리.

